



부산 사나이들 지구촌 IT무대 ‘일냈다’



“전 세계 모든 치과의사들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하고, 모든 환자들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.”

의료상담 및 환자관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‘iClinic’을 개발한 박종운, 이성진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계철)가 2월부터 추진 중인 ‘글로벌 K-스타트업 사업’에 참여해 이미 총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.

진료대기실에 비치된 휴대기기와 환자 개인의 이동전화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결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유기적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서비스인 iClinic은 현재 iOS와 PC버전으로 제작돼 499달러의 가격으로 200건 이상의 유료판매가 이뤄지는 등 의료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박종운 원장은 “치과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iClinic을 생각했어요. 치과에서는 환자 상담을 위해 인쇄물이나 모형, 컴퓨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패드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매우 편리하다는 걸 느끼고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하게 됐어요”라고 밝혔다.

박 원장의 말처럼 iClinic은 사진, 동영상을 보여주는 기능과 함께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개별적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. 또 환자가 아이패드에 보여지는 동의서, 주의사항란에 서명을 할 수 있고 의사는 그 내용을 에어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일링, 녹음 등이 가능하다.

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Clinic의 개발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.

박 원장은 “프로그램 기획, 제작, 영업, 해외마케팅 등 여러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프로그램 개발자 섭외도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K-스타트업 사업에 지원하게 됐고 일면식도 없었던 참조은치과의 장봉규 원장님, 애이플란티아치과의 윤성만 원장님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”라고 말했다.

K-스타트업은 구글, 포털사(네이버, 다음, SK컴즈),

**방통위 ‘글로벌 K-스타트업’ 참여 ‘순항’
iOS와 PC버전 제작 … 1억 매출 기염
진료영상 등 담은 치과 E-book도전할 것**

통신사(KT, LGU+) 등과 협력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,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이 지원되고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(IR) 및 해외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.

이 사업에는 현재 30개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13개팀이 창업을 했고 6개팀이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이다. 또 이 사업에 선발된 팀은 오는 9월까지 서비스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중 우수 서비스로 선정된 10개팀에 대한 시상도 이때 이뤄진다.

박종운, 이성진 원장의 메디트 플러스는 K-스타트업 심사위원분들로부터 가장 성공할 것 같은 팀으로 선정돼 빌 게이츠상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다.

박 원장은 “여러 경로를 통해 프리로 일하시는 프로그래머, 디자이너 분들을 섭외해 팀을 구성, 프로그램 제작

을 했습니다. 사실 제작진 모두 직장이 있고 여러 지역에 살고 있어 원격제어 기능 어플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”라고 덧붙였다.

박 원장과 이 원장은 iClinic을 통해 한국 치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. 기존 E-book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치료 영상, 저자의 강의 영상, 애니메이션, 여러 효과 등을 결합한 치과 책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.

이처럼 성공을 눈앞에 둔 박 원장과 이 원장은 부산대 동기로 수년간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.

이 원장은 “예과 때부터 알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. 서로의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했고, 특히 박 원장이 제 자취집에 자주 놀러오며 더 어울리게 된 것 같네요. 그러다 보니 졸업 후에도 자주 어울렸고 이번 개발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”라고 말했다.

사이 좋은 벗끼리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,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다는 뜻의 ‘금란지의’란 사자성어처럼 두 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.

유영민 기자 yym0488@kda.or.kr